

Periodontally Compromised Patient에서 Cross Arch Splinting을 이용한 구강회복 증례

이상욱, 문조웅, 임순호, 홍순호 삼성의료원 보철과

Ante's law에서는 “지대치의 치근면적은 pontic으로 대치될 치아들의 치근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더 넓어야 한다.”고 했고, 지대치의 치주부착의 길이가 적어도 2/3~1/2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져왔다. 이러한 개념에의해 감소된 치주조직을 가진 치아는 발거되어졌고, 가철성 보철물로 이행되어졌다.

1975년 이후 Nyman, Laurell, Lundgren, Ericsson 등에 의한 일련의 연구에서 치주적으로 심하게 파괴된 치아도 보철물을 성공적으로 지지할수 있다고 주장되었고, Nyman은 1979년 감소된 치주조직을 갖는 소수잔존치도 치주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long span bridge의 지대치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했다.

치주조직의 파괴에 따른 지지감소로 이차성 교합성외상을 갖는 경우, 정상적 저작압을 견디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치조골 흡수와 동요도의 증가가 수반되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으로 cross arch splinting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

Splinting의 장점 :

- 1) 저작력의 방향을 측방압에서 수직압으로 변경시킬수 있다.
- 2) 1개의 치아가 받는 힘을 감소시키도록 힘을 재분포한다.
- 3) 치아의 변위를 방지한다.
- 4) 과맹출을 방지한다.
- 5) 경사된 치아를 안정화한다.
- 6) 식편압입을 방지한다.
- 7) 지대치의 안정과 강화에 기여한다.

Splinting의 단점 :

- 1) 청결유지가 힘들다.
- 2) 광범위한 수복술식을 요한다.
- 3) 치료비용이 증가한다.
- 4) 수리가 어렵다.
- 5) 동요도, 이차우식 등의 임상적 검사가 어렵다.
- 6) 치질의 삭제가 많다.

본 증례에서는 중중도 이상의 치주조직 파괴와 동요도를 보이고 있는 지대치에서 적절한 치주치치와 교정치료후 cross arch splinting을 통한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여 만족할만한 기능적 결과를 보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